

패션비즈니스 제26권 2호

ISSN 1229-3350(Print)
ISSN 2288-1867(Online)

J. fash. bus. Vol. 26,
No. 2:15-27, May. 2022
[https://doi.org/
10.12940/jfb.2022.26.2.15](https://doi.org/10.12940/jfb.2022.26.2.15)

Corresponding author

Hanhim Park
Tel : +82-53-620-2228
Fax : +82-53-620-2228
E-mail : kfmarketing401@kmu.ac.kr

Keywords

ecology,
protect the environment,
back to nature,
environmental protectionism,
nature-oriented
에콜로지, 환경보호,
자연회귀, 환경보호주의,
자연지향주의

에콜로지의 조형적 특징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박한힘*

*계명대학교, 패션마케팅학과

Research on Fashion Design Using the Formative Features of Ecology

Hanhim Park*

*Dept. of Fashion Marketing, Keimyung University,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erform research of ecology concepts expressed in fashion and to propose a new ecology fashion design based on the results. As a specific research method, first, to determine the concept of ecology, the contents related to ecology were extracted and organiz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then a fashion collection research was conducted to acquire basic design data, such as silhouettes, materials, details, and colors. From WGSN, and a total of 57 images were selected and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sign suggestions. As a result of collecting the collection images, it was found that cotton or denim fabrics were mainly used, and in particular, the frequency of use was high mainly for bright tones. The use of chambray, lace, and wrinkles, was also frequent, and the use of expression techniques using burn-out, bleach, and bleaching effects or parts, or entire dyeing was often noticeable. The colors showed neutral and pastel-toned characteristics, and the silhouette was mainly composed of long silhouettes centered on maxi, such as a top or calf based on the knee, rather than a mini. Fabrics for the final designs were linen and sappan wood, and they were used for the dye and red was used as the overall color. The silhouettes were simplified, and care was taken to prevent unnecessary waste, such as paper or materials, from being generated during the production stage. We tried to achieve the purpose of eco-logy by refraining from excessive trimming, except for essential subsidiary materials, such as zippers.

I. 서론

인류가 처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산업혁명 시기를 기점으로 크게 심화되어 왔다. 과학의 발전과 이를 통한 산업화는 인류에게 편리한 생활을 제공해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잉 생산으로 인한 자원의 소비를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의식주라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에 집중되었던 라이프스타일은 양질의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됐고,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필연적으로 자원 소비의 가속화와 그로 인한 각종 폐기물의 배출로 이어졌고, 급기야 생태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말았다. 같은 맥락에서 의복은 신체의 보호라는 1차원적인 기능에서 벗어나서 입는 사람의 라이프스타일이나 가치관을 표현하는 매개체로 거듭났고, 생산 방식이나 소비 패턴의 변화를 가져왔다. 소품종 소량 생산 위주의 패션산업은 다품종 대량 생산 방식으로 변화됐으며, 최근에는 ‘패스트 패션’을 지향하는 브랜드들이 대거 등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변화는 필연적으로 과잉 생산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으며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정서적인 부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하고 미래의 환경에 관한 책임과 윤리적인 관념이 적용된 에콜로지 트렌드가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패션은 인간의 미의식과 시대정신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에 의해 형성되는 문화적인 산물이기도 하며, 패션의 역사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왔다. 또한, 패션을 통해 표현된 인간의 자연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각도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 따라 시대별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콜로지는 사람들의 생활양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환경의 보호라는 일차적인 목적에서 시작된 이 트렌드는 패션디자인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디자인 콘셉트로 사용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많은 패션디자이너가 활용하고 있다.

이 패션디자인 개발 연구는 에콜로지의 개념을 규명하고 패션에 표현된 에콜로지 콘셉트의 등장 배경과 전개 방향을 고찰함과 더불어 에콜로지 패션의 특성을 규명해서 도출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에콜로지 패션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구체적인 연구의 방법으로는 WGSN, VOGUE를 비롯한 패션전문 웹사이트 및 선행연구 Lee, Kim, and Jeon(2008)과 Jung(1996) 등을 중심으로 에콜로지에 관련된 내용이 기술된 내용 중 연구에 필요한 부분들을 추출해서 정리했으며, 실물영상 제작을 위한 에콜로

지 패션의 특징적인 실루엣과 소재, 디테일, 색채 등의 디자인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2015 S/S 시즌에서 2021 S/S 시즌까지 기성복 컬렉션 중에서 에콜로지의 형태 및 조형적 특징이 드러나는 이미지를 WGSN에서 검색해서 추출했다. 구체적인 추출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WGSN의 매크로 포어캐스트(macro forecast) 챕터에서 에콜로지 콘셉트를 주제로 작성된 리포트를 검색한 후, 리포트에 언급된 에콜로지 콘셉트와 연관성이 높은 시즌과 디자이너 컬렉션을 찾고, 마켓(market) 챕터에서 복종을 여성복으로 설정하고 카테고리(category) 어패럴(apparel)로, 시즌은 2015년에서 2021년까지의 S/S 시즌으로 설정해서 개수의 제한 없이 가능한 많은 이미지를 찾았다. 그렇게 찾은 이미지들은 Jung(2010)과 Kim and Lee(2003)의 표현 양상으로 패션 스타일을 나누고 형태별 특성과 색채별 특성 그리고 소재 및 기법별 특성으로 나누어서 디자인의 특징을 분석하는 선행연구를 참고해서 패션디자인 전공 석사 과정생 2명과 함께 총 57장의 이미지를 선별해서 에콜로지 패션디자인 제작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했다.

II. 이론적 배경

1. 에콜로지의 개념

에콜로지라는 용어는 독일의 생물학자 에른스트 헤켈(Ernst Haeckel)이 1869년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회적으로 환경문제 관련 이슈가 부각 되면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개념이다. 에코(Eco)는 희랍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집’이나 ‘생활의 장’을 뜻한다. 다시 말해 우리 생활 주변의 생물 연구를 지칭한 것으로 생물군과 환경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즉 생물과 환경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과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Odum, 1993/2014). 이처럼 에콜로지는 생물과 이를 둘러싼 환경 간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일컫는 환경의 정의는, 우리 주변의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현상, 또는 생활하는 주위의 상황 등을 두루 의미하는 것이다(Kim, 1991a).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계적인 인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식량의 부족과 환경의 오염, 그리고 이에 수반되어 나타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은 인간에게 생태적 위기에 대해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에콜로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학문의 영역으로 대두되기 시작했고, 인류 문명의 진화가 지구 생태계의 생물학적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하기 시작했다.

에콜로지는 원래 생태학을 지칭하는 용어였지만 현재는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서 ‘환경보호사상’의 성격을 더 가지게 되었다. 사람들의 에콜로지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우리 사회의 인간 정신의 근원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성 회복을 위해 ‘자연으로의 회귀’나 ‘근본으로 돌아가자’와 같은 움직임으로 표현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스스로가 보호해야 하는 환경 일부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에콜로지는 오늘날 점점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현대 사회의 자연관을 이해하는 데 더욱 중요한 개념이 되어가고 있다.

에콜로지를 지향하는 방안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분야에 따라서 분류하는 용어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Kim(1991b)과 Pepper(1984/1989)는 크게 자연 지향 주의와 기술 지향 주의로 나누고 있다.

자연 지향 주의 방안은 환경의 문제는 전적으로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겨났다고 보는 것으로, 과학기술비판론에 근거하는 방안이다. 과학기술비판론이란, 인간은 자연에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지만, 자연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이론으로, 근원은 18세기 낭만주의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1960년대 후반의 반(反)과학사조인데, 반과학사조의 대표적인 학자인 로잭(Rozak)은 현대화 과정으로 인해 경시되어왔던 신비주의(神秘主義)의 사상 및 전통사상에 대한 재평가를 주장하면서 이 같은 자신의 주장을 하나의 과학에 대한 일종의 대항문화로 정의하기도 했다. 환경주의자들은 자연을 단순히 하나의 대상 즉 사물로만 취급하는 왜곡된 인간의 자연관에 바탕을 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환경의 위기가 왔다고 보고, 생태환경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도록 경제의 규모를 축소하자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Schmaher, 1973/1986). 기술 지향 주의는 인간의 경제적인 욕구의 충족을 가장 우선 되어야 하는 가치로 여겨, 자연을 인간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파악하고, 자연이 가지는 생태적 권리나 환경 보존은 부차적이라고 보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16세기에서 18세기에 걸친 근대 과학의 발전으로 자연현상의 보편적인 원리와 법칙을 발견하게 되면서 인간이 과학기술을 통해 자연을 조절·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Doosan encyclopedia, 2022).

2. 에콜로지 디자인의 변천 과정

디자인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 문화적인 가치관

을 시각적 형태의 메시지로 전환해 전달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Sparke, 1995). 개인주의 경향이 팽배했던 1980년대에는 제품의 포장이 지나치게 과대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음에도 그냥 버려지고, 커피필터나 종이타월이 불필요하게 표백되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Han & Kim, 1999).

이에 따라 기업과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녹색운동이라는 환경오염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운동이 시작됐는데, 이것은 디자인이 단순히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삶의 질’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Han & Kim, 1999). 다시 말해서 생산과 소비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제품의 개념을 변화시켜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사용 후, 처리 과정까지 고려하게 되었고(Manzini, 1991), 양적인 기준이 우선시 되어오던 발전의 기준이 질적인 기준으로 변화되면서 디자인은 외형의 미적 아름다움이나 편리성뿐만이 아닌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위치까지 이르게 됐다(Sparke, 1995).

1990년대에는 에콜로지가 디자인 분야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제품 위주로 환경 친화적 제품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집중되기 시작됐는데, 주로 사용 후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리사이클링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마케팅 측면에서도 제품이 가진 물질적 가치보다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마케팅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디자인 분야 기업들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전략들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시작했다. 폐기물의 리사이클링에서 폐기물 자체의 생성을 막기 위해 제품 수명의 연장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지속가능성 인증을 통해 그들의 크고 작은 친환경 노력과 실천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친환경 로고’를 개발해서 의식 있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노력을 알리는 완전한 투명성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구체적인 성과도 이뤄내고 있다.

Table 1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디자인 분야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에콜로지가 등장하게 됐으며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는지에 대한 사회, 문화적 배경 전반에 관한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Table 1. Changes in Ecological Trends in the Field of Life Design

| Year | Key words | Features of Ecology |
|------------|--|---|
| Early 80's | Individualism, Environmental Pollution | In the 1980s, when individualism prevailed, a lot of unnecessary waste was generated, leading to environmental pollution. |
| Late 80's | Green Movement, Quality of Life | It has emerged that design should not just exist for human convenience, but should be mindful of the "quality of life." |
| 1990's | Eco-Friendly, Re-Cycling | Recycling products to reduce waste have begun to emerge, and marketing has also begun to focus more on marketing aimed at improving human quality of life than on the material value of the products. |
| 2000's | Sustainability | Has gone one step further from recycling waste, we began to consider extending the product life to prevent waste itself from being generated. |

III 에콜로지 패션의 조형적 특성

1. 에콜로지 패션의 변천 과정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급격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한 문제의식 증가와 함께 자연과 조화로운 공존에 대한 이슈가 두드러지기 시작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는 에콜로지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만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에콜로지의 영향으로 인해 자연의 보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를 점차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패션 분야에서도 사람들은 친환경적인 노력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패션에서도 친환경적인 소재나 자연을 주제로 한 디자인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패션에서의 에콜로지 경향은 1960년대 히피족이 등장하면서 현저하게 확대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물질주의에 대한 반발이나 반전, 등의 신념이 패션에서 잘 표현됐다(Laver, 1988).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지기 시작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사람들은 천연자원의 소비와 그에 따른 자원의 고갈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도심을 벗어난 한적한 전원적 의식주 스타일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고,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대부분을 바꾸기도 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문명의 발달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에 대한 사람들의 위기 의식과 더불어 의식 구조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공

동의 운명체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에콜로지와 환경에 대한 문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패션 역시 그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서 자연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오염된 환경을 거부하며,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를 표현하고자 하는 에콜로지 패션을 등장시켰는데, 패션의 에콜로지 경향은 80년대 중반의 천연섬유나 천연염색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본격화했다. 1989년에 열린 엑스포필(Expofil)에서는 당시 지구환경 보호에 관한 관심을 반영해서 'Going Green'이라는 주제로 90/91 F/W 소재 트렌드 제안을 하기도 했다.

사람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성숙해지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경제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생산과 소비 중심의 경제 정책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민간 주도의 환경보호 단체들이 생겨나고, 이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등 더 이상의 환경파괴는 막아야 한다는 사람들의 의식 변화가 빠르게 확산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의류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섬유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사람들은 합성섬유는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기 시작했고, 고부가가치 섬유로 각광 받던 레이온(rayon)이나 나일론(nylon) 같은 섬유들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이산화질소 같은 유해물질로 인해 오존층을 파괴하는 유해 섬유로 점차 사용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와는 반대로 천연섬유

에 대한 선호도는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고자 천연염료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졌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천연소재와 신소재의 복합화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연주의적 감성과 신소재 기술의 접목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천연의 포근함을 지닌 인조털과 마찬가지로 천연섬유에 의한 편안함을 기본으로 유지하면서 디자인 측면에서 현대적 감성의 창출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에콜로지 패션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의류 브랜드들의 ‘무염직물(non-dying fabri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순수한 형태로 색을 입히는 개념이기도 한 무염은, 직물 고유의 색상을 그대로 유지한 원사와 이를 이용해 만든 섬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에콜로지 패션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는 중이다. 무염 직물은 접근성이나 대량생산이 쉽다. 생산 공정에 드는 시간이나 소요되는 자원의 양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염색을 거치지 않은 직물은 저자극성이므로, 민감성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필한다. 그러나 무염 직물은 선택할 수 있는 색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제품 고유의 특성을 부각할 수 있는 약간의 색의 변형이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박테리아를 섬유 염색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서 상용화를 위한 대량생산을 앞두고 있다. 스타트업에서 개발된 이 기술은 독성의 화학물질이나 염색에 필수적인 물의 사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에콜로지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다. 색상은 박테리아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고, 현재까지는 블루, 퍼플, 레드, 오렌지 정도의 색이 개발된 상태다. 이 기술의 가장 큰 이점은 색을 내는 과정에 최소한의 탄소만 필요하다는 것이다. 폐수도 전혀 배출하지 않고, 매염제나 일체의 첨가물이 필요하지 않다. 천연염료와 달리 계절과 관계없이 원료를 조달할 수 있고, 수확할 필요도 없다. 현재, 일부 시범적으로 상용화의 과정이 진행 중이며, 박테리아는 천연 물질에서 더 잘 배양되는 경향이 있으며, 색의 종류는 아직은 제한적인 상태이다. 아래의 표(Table 2)는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에콜로지 패션의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특징을 정리한 것으로, 시대별 키워드와 주요 내용을 축약해서 정리했다.

Table 2. Features of Ecology that Appeared in Fashion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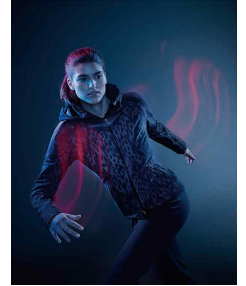

| Year | Key words | Features of Ecology | Images |
|--------|-----------------------------|---|--|
| 1960's | Hippy, resistance, anti-War | The Hippies' beliefs of resistance, anti-war, and other beliefs against materialism were well expressed in ecology fashion. |  <p>Figure 1. Hippy (www.krasimiramira.wordpress.com)</p> |
| 1970's | Country life, materialism. | People began to fear the depletion of resources, increased interest in rural clothing, food, and housing culture outside the city, and naturally began to change people's lifestyles. |  <p>Figure 2. Countryside Life (www.unsplash.com)</p> |

Table 2. *Continued*

| Year | Key words | Features of Ecology | Images |
|--------|--|---|--|
| 1980's | Back to nature, going green | <p>In the 1980s, many changes began to take place in the structure of consciousness along with people's sense of crisis over the destru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caused by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p> <p>Ecology fashion was shown up to minimize the destru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refuse the contaminated environment, and express the original desire of humans to back to their natural state.</p> |  <p>Figure 3. ExpoFil (www.behance.net)</p> |
| 1990's | Environmental protection, natural fiber, natural dye | <p>Criticism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oriented economic policies, which had been indiscriminately focused only on economic growth, began to emerge.</p> <p>Preference for natural fabric began to increase gradually, and the development of natural dyes was made to minimize environmental pollution.</p> |  <p>Figure 4. Nylon Fabric (www.efabrics.co.uk)</p> |
| 2000's | Composite material(fabric) | <p>In the 2000s, the combination of natural and new materials(fabric) began to appear in various ways.</p> |  <p>Figure 5. Trizar Fabric (www.m.fashionbiz.co.kr)</p> |
| latest | Non-dyeing fabric, bacteria | <p>Recently, brands are increasingly interested in "non-dye fabrics."</p> <p>A technology that can use bacteria for fiber dyeing has been developed, and experiments are in full swing.</p> |  <p>Figure 6. Non-dyed Fabric (www.pinterest.co.kr)</p> |

2. 에콜로지 패션의 조형적 특징

패션산업은 최근까지도 패스트 패션 산업이 강세를 이어가는 등 다른 산업에 비해서 에콜로지에 동참하는 속도가 비교적 느린 편이었다. 저렴한 가격에 대량생산을 하기 위해서 환경에 유해한 성분들을 사용해서 의류를 생산하고, 판매가 되지 않은 제품들은 폐기 처분을 위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지금의 에콜로지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Chun, Youn, & Kim, 2017). 지금부터라도 에콜로지 적인 시각으로 디자인에 접근하고 패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숙고해보는 의식 있는 개념을 가져야 할 것이다. Ha and Park(2009)은 에콜로지 패션에 나타난 디자인적인 요소를 시각적 측면에서 접근해서 구조적인 재단법과 스타일링 기법에 따른 연출과 색상 및 색조 등으로 표현했고, 구체적인 특성으로는 자연 친화적이고 기능적이며 지속할 수 있음을 도출했다. Yoo(2014)는 패션 브랜드에 나타난 에콜로지 디자인의 특성을 자연 지향, 재활용, 지속 가능 등으로 나누었다. 이처럼 에콜로지 패션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이제는 패션산업에서도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위한 환경보호라는 윤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친환경 패션디자인을 지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삶의 질적 향상과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친환경을 디자인을 기본 모티프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디자인을 패션에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디자인 개발 연구도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자연 지향적이며 친환경적인 패션디자인을 지향하는 디자인의 제안이 될 수 있도

록 하고자 했다.

2015년 S/S 시즌부터 2021년 S/S 시즌까지 컬렉션에서 에콜로지 패션의 특징을 보여주는 컬렉션 이미지를 수집한 결과 소재는 면이나 데님 소재의 사용이 도드라졌다. 특히, 생지 데님(raw denim), 애시드 워시(acid wash), 화이트 데님 등 밝은 톤 위주의 사용 빈도가 높았으며, 삼브레이나 레이스, 주름이나 구김 소재의 사용도 눈에 띄었다. Figure 7부터 Figure 9까지는 데님 소재를 이용한 에콜로지 패션을 보여주는 대표 이미지들을 추출한 것이며, Figure 10부터 Figure 11까지는 얇은 데님 소재나 면 소재를 이용한 구김이나 주름을 이용한 소재, 그리고 레이스를 이용한 에콜로지 패션의 대표 이미지 들을 추출한 것이다. 또한, 번-아웃(burn-out)과 블리치(bleach) 및 부분, 혹은 전체 염색을 이용한 표현기법의 사용도 눈에 띄었는데, 색채는 뉴트럴 및 파스텔톤 위주의 특징을 보여줬으며 미드톤과 미드톤-브라이트의 아이템들이 눈에 띄었다. Figure 12부터 Figure 13까지는 염색을 이용한 표현기법을 활용한 에콜로지 패션의 대표 이미지들이다. 그 외 블랙과 화이트의 조합과 네온과 더스티(dusty) 계열이 포인트로 사용된 경우들도 볼 수 있었으나 비중이 크지 않아서 별도의 이미지들은 추출하지 않았다. 실루엣은 미니보다는 무릎을 기준으로 위나 종아리, 혹은 무릎 기장, 롱 등 맥시 위주의 긴 실루엣이 주를 이루었다. 디테일은 단순했으며, 장식의 사용도 대부분 최소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컬렉션에서 보여지는 에콜로지의 조형적 특징은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의 전달이다. 과거에는 에콜로지적인 이미지의 전달을 위해 리사이클링의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시기



Figure 7. *Mqal 18S/S*
(www.wgsn.com)



Figure 8. *Joseph 15S/S*
(www.wgsn.com)



Figure 9. *Matthew Adams 16S/S*
(www.wgsn.com)



Figure 10. *Burberry 17S/S*
(www.wgsn.com)



Figure 11. *Allude 16S/S*
(www.wgsn.com)



Figure 12. *Dior 19S/S*
(www.wgsn.com)



Figure 13. *Emporio Armani 22S/S*
(www.wgsn.com)

도 있었으나, 현재는 자연 그대로의 인위적이지 않은 이미지의 전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디자인을 살펴보면, 자연 친화적인 조형적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크루(Y/wh) 계열의 색을 사용한 가공하지 않은 소재와 시각적으로 편안해 보이는 톤을 소재에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자연 그대로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제되지 않은 날 것의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화이트 계열의 플란넬이나 크레이프, 생지 데님 등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5에서 보이는 것처럼 구겨지거나 주름진 불규칙한 패턴을 보여주는 디자인은 단순해 보이는 색상을 통해 편안한 느낌을 전달해 주면서도 정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주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실루엣은 인체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강조하지 않아서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을 연상시키는 패턴을 보여준다. 다음은 에콜로지의 조형적 특징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IV. 작품제작

1. 디자인 콘셉트

복종은 여성복이며, 에콜로지 패션의 특징적인 조형 요소를 보여주는 컬렉션 디자인 이미지 57개를 참고해서 총 4개의 원피스와 드레스 디자인을 제안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심플하게 기획했으며, 에콜로지 트렌드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Table 3. Formative Elements of Ecology Fashion

| Elements | Features |
|-------------|--|
| Materials | The use of cotton or denim materials stood out. In particular, the use of bright tone-oriented materials such as raw-denim, acid-wash, and white denim was high, and the use of lace and wrinkles was also noticeable. |
| Colors | Unprocessed materials using ecru-based colors and visually comfortable-looking tones are used in the fabric to display a natural image as a whole |
| Silhouettes | The silhouette does not reveal or emphasize the curve of the human body as it is, showing a pattern reminiscent of nature that is not artificial. |
| Details | The design, which shows wrinkled or wrinkled irregular patterns, can be said to be a design that conveys a comfortable feeling through simple-looking colours while expressing an unpurified natural image well |

제안한다는 연구의 목적에 맞게 실루엣이나 디테일에 집중하기 보다는 디자인 콘셉트 자체와 에콜로지에 부합하는 작품의 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패턴의 제작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종이나 소재 등의 불필요한 쓰레기의 배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천연소재와 천연염료를 사용해서 친환경적인 염색기법을 사용했으며, 지퍼와 같은 필수 부자재를 제외한 과도한 트리밍의 사용이나 디테일의 사용을 억제해서 정갈해 보이는 디자인을 지향했다. 평면 패턴과 입체 패턴을 병용해서 패턴을 제작했으며, 에콜로지 콘셉트 패션 디자인이라는 기획 의도에 부합하는 친환경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2. 디자인의 특징적 요소

1) 소재 및 염색기법

소재는 ‘린넨(linen)’을, 염료는 ‘소목’을 사용했고, 색은 컬러션 전체를 붉은색으로 염색했다. 린넨은 의류 소재로 가장 많이 쓰이는 천연섬유 중 하나로, 린넨의 구김은 그 자체로 특유의 매력으로 어필되기도 하며, 용도에 따라 주름을 극대화 시키는 표면 효과를 부여하기도 한다(Song, Kim, & Kim, 2007). 천연염료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에콜로지에 적합한 염색방법이지만 합성염료보다 염색 견뢰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Jung, 2020). 특히, 소목은 그 중에서도 견뢰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염료이기 때문에 원하는 정도의 발색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천연염료는 합성염료보다 색상이 은은하고 시간이 지나 변색이나 퇴색이 되

더라도 안정된 색감을 나타내줄 뿐만 아니라 매염제에 따라서 다양한 명도와 색상의 변화를 꾀할 수 있어서 장점 또한 크다 하겠다(Joo & Nam, 1997).

이번 디자인 개발에 사용한 소목 염료는 매염제로 전통적인 염색방법인 회즙이나 정제된 알루미늄 화합물을 매염제로 사용하는데, 회즙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시중에 판매 중인 매염제를 구해서 사용했다. 컬러션 주제색인 붉은색은 기본적으로 강렬한 에너지를 직접 표현하는 색이며, 긴 실루엣의 여성성을 강조하는 형태와 함께 사용될 때 더욱 돋보이기는 색이기도 하다. 또한, 강한 주목성을 갖는 색의 속성 때문에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주며 여성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원피스나 드레스 등의 아이템에 잘 어울리는 색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제 색으로 선택했다.

2) 실루엣 및 디테일

조사연구를 통해 도출된 에콜로지 패션의 실루엣과 디테일 특징은, 무릎 아래 이상의 맥시 실루엣 위주로, 별도의 염색을 하지 않거나 소재의 주름이나 구김을 그대로 살린 생지(生紙) 소재의 사용이다. 또한, 필수 부자재를 제외한 장식의 사용을 자제했으며, 같은 맥락으로 정갈한 이미지의 여성성이 강조된 드레스와 원피스 아이템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작품 제작도 이와 같은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장식이나 디테일의 사용을 자제하고 드레스와 원피스 위주로 제작했다. 디자인1은 저고리의 중첩이나 치마의 주름과 옷고름을 참고했는데, 한복을 디자인 모티프로 삼은 이유는 연구를

통해 얻어낸 에콜로지 패션의 특징인 인체의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강조하지 않아서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을 연상시키는 패턴을 보여주는 것과 한복의 곡선을 강조하는 부드러운 이미지의 디자인 특징 간의 연관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 방식의 천연 염색과 어우러짐이 더 돋보일 것으로 판단했다. Figure 14는 디자인 포인트를 확대한 이미지이고, Figure 15는 디자인1의 앞면과 뒷면 이미지이다. 디자인 2는 가슴 아랫부분까지 내려오는 선 옷깃(stand-collar)과 옷깃의 끝부분에 타이-다이(tie-dye) 기법을 참고해서 디자인한, 포인트가 돋보이는 맥시 실루엣의 슬리브리스(sleeveless) 드레스 디자인이다. Figure 16은 디자인2의 포인트인 매듭을 확대한 이미지이다. Figure 17은 디자인 2의 앞면과 뒷면 이미지이다. 디자인3은 기본 원-버튼 슬리브리스 재킷 디자인에 구김이 많이 가는 린넨 소재의 특징을 포

켓 부분에 집중시킨 디자인이다. 구김 효과가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포켓에 여유를 많이 주어서 실루엣이 편안해 보이도록 했다. Figure 18은 디자인 3의 포인트로, 포켓 부분을 확대한 이미지이다. Figure 19는 앞면과 뒷면 이미지이다. 디자인4는 이브닝드레스 디자인으로 가슴 부분의 주름 이외에는 별도의 디테일을 넣지 않아서 정갈한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기획했으며, 양쪽 가슴 부분의 주름 디테일에 차이를 두어서 지루해 보이지 않도록 했다. 네 개의 디자인 모두 자연스러운 구김과 편안한 실루엣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패턴에 여유를 충분히 줬으며, 염색이 끝난 후 기계 전조를 돌려서 접힘 디테일의 끝부분의 색이 바래 질 수 있게 해서 낡아 보이는 듯한 효과도 가미했다. Figure 20은 가슴 부분의 디자인 포인트를 확대한 것이며, Figure 21은 전체 디자인의 앞면과 뒷면의 이미지이다.

Table 4. Features of Designs

| no | images | features |
|--|---|--|
| <p>#1</p>  <p>Figure 14. Key Detail</p> |  <p>Figure 15. Design 1</p> | <p>The overlapping details of hanbok jeogori and wrinkles of skirts were borrowed.</p> |
| <p>#2</p>  <p>Figure 16. Key Detail</p> |  <p>Figure 17. Design 2</p> | <p>Based on the basic dress design of the Maxi silhouette. The detail motif was taken from the 'tie-dye dyeing' technique.</p> |

Table 4. Continued

| no | images | | features |
|---|---|--|--|
| <p>#3</p>  <p>Figure 18. Key Detail</p> |  |  | <p>It is a design that focuses on the features of linen that is wrinkled a lot. On the pocket, a lot of room was given to the pocket so that the wrinkle effect could be revealed.</p> |
| <p>#4</p>  <p>Figure 20. Key Detail</p> |  | | <p>It is designed so that neat images can be highlighted without additional details other than wrinkles on the chest.</p> |

(taken by author)

V. 결론

자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심의 증가는 에콜로지(ecology)라는 트렌드를 만들어 냈으며, 에콜로지는 사람들의 생활양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에콜로지는 환경의 보호라는 일차적인 목적에서 시작된 트렌드로, 패션디자인에서는 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디자인 콘셉트로 사용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많은 패션디자이너가 활용하고 있다. 이 패션디자인 개발 연구는 에콜로지의 개념을 규명하고 패션에 표현된 에콜로지 콘셉트의 등장 배경과 전개 방향을 고찰함과 더불어 에콜로지 패션의 조형적 특징을 규명해서 도출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에콜로지 패션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했다. 구체적인 연구의 방법으로는 먼저, 에콜로지의 개념 규명을 위해서 문헌연구를 통해 에콜로지에 관련된 내용이 기술된 내용을 추출해서 정리한

후, 실물의상 개발을 위한 에콜로지 패션의 특징적인 실루엣과 소재, 디테일, 색채 등의 디자인 기초 자료 취득을 위한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조사연구는 2021 S/S 시즌부터 2015 S/S 시즌까지 기성복 컬렉션 중에서 에콜로지의 형태 및 조형적 특징이 드러나는 이미지를 WGSN에서 검색해서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총 57장의 이미지를 최종 선별해서 실물의상의 제작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했다. 컬렉션 이미지를 수집한 결과, 소재는 면이나 데님 소재가 주로 사용됐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밝은 톤 위주의 사용 빈도가 높았다. 샴브레이나 레이스, 주름이나 구김 소재의 사용도 빈번했으며, 번-아웃(burn-out)과 블리치(bleach) 및 표백 효과나 부분, 혹은 전체 염색을 이용한 표현기법의 사용도 자주 눈에 띄었다. 색채는 뉴트럴 및 파스텔톤 위주의 특징을 보여줬으며, 실루엣은 미니보다는 무릎을 기준으로 위나 종아리, 혹은 무릎 기장, 롱 등 맥시 위주의 긴 실루엣

이 주를 이루었다. 최종 결과물은 총 4벌의 여성복 디자인을 제안했으며, 소재는 린넨(linen)을, 염료는 '소목'을 사용했고, 색은 붉은색으로 염색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간소화했으며, 제작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종이나 소재 등의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지퍼와 같은 필수 부자재를 제외한 과도한 트리밍의 사용도 자제해서 에코로지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노력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소비자들과 기업, 그리고 학계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이 디자인 개발 연구도 그러한 노력의 일부분으로 적어도 이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만이라도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ferences

- Allude 16S/S. (2015). [Photograph]. *WGSN*. Retrieved December 23, 2021, from <https://www.wgsn.com/library/results/eb5494990e5b09501dfbde20e5aebbb4/%EB%9F%B0%EC%9B%A8%EC%9D%B4>
- Burberry 17S/S. (2016). [Photograph]. *WGSN*. Retrieved December 23, 2021, from <https://www.wgsn.com/library/results/eb5494990e5b09501dfbde20e5aebbb4/%EB%9F%B0%EC%9B%A8%EC%9D%B4>
- Chun, S., Youn, J., & Kim, H. (2017). A study on the fashion design for the green message delivery.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18(2), 553-570. Retrieved from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22962>
- Countryside life. (n.d.). [Photograph]. *Unsplash*. Retrieved February 11, 2022, from <https://unsplash.com/s/photos/country-life>
- Dior 19S/S. (2018). [Photograph]. *WGSN*. Retrieved March 10, 2022, from <https://www.wgsn.com/library/results/22dc43026edfeb4f75aa379eaa20e3c>
- Emporio Armani 22S/S. (2021). [Photograph]. *WGSN*. Retrieved December 23, 2021, from <https://www.wgsn.com/library/results/eb5494990e5b09501dfbde20e5aebbb4/%EB%9F%B0%EC%9B%A8%EC%9D%B4>
- Expofill. (2015). [Photograph]. *Behance*. Retrieved February 11, 2022, from <https://www.behance.net/search/projects/?search=EXPOFIL&sort=recommended&time=month>
- Ha, S., & Park, J. (2009). Characteristics of design elements in environment-friendly fashion: Focus on the content analysis of previous literatu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3(8), 1280-1292. doi:10.5850/JKSCT.2009.33.8.1280
- Han, S. W., & Kim, Y. I. (1999). Ecological image in fashion during early period of 1990'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23(2), 296-306. Retrieved from <https://papersearch.net/thesis/article.aspx?key=264160>
- Hippy. (2012). [Photograph]. *Krasimiramira.wordpress*. Retrieved February 11, 2022, from <https://krasimiramira.wordpress.com/2012/02/24/1960s-fashion/>
- Joo, Y., & Nam, S. (1997). A study on the nature mordants in natural dying(I): Rice straw ash. *Textile Coloration and Finishing*, 9(6), 33-41. Retrieved from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140256>
- Joseph 15S/S. (2014). [Photograph]. *WGSN*. Retrieved December 23, 2021, from <https://www.wgsn.com/library/results/eb5494990e5b09501dfbde20e5aebbb4/%EB%9F%B0%EC%9B%A8%EC%9D%B4>
- Jung, E. (2010). *A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funologic design in modern fash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J. (2020). Natural dying of silks dyed singly with caesalpinia sappan, dactylopius coccus, combination-dyed with caesalpinia sappan and phellodendron amurense rupr, and with dactylopius coccus and phellodendron amurense rupr.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6(4), 275-281. doi:10.17703/JCCT.2020.6.4.275
- Jung, Y. (1996). A study on "Eco-Look"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30, 227-237. Retrieved from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199611919948121.page?msclid=bf33a468c15611ec955eb5f73b5eb981>
- Kim, D., & Lee, S. (2003). A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kitsch in modern fashion desig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9(2), 13-32. R

- retrieved from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000996509>
- Kim, M. (1991a). *Korean dictionary*. Seoul: Keum-seong-kwan.
- Kim, M. (1991b). *동서양의 과학전통과 환경운동* [Science traditions and environmental movements in the East and West]. Seoul: Doosan magazine BU.
- Laver, J. (1988). *Costume & fashion: a concise history*. New York, NY: Thames & Hudson.
- Lee, J., Kim, J., & Jeon, D. (2008). A study on the appearance characteristics of selected fabrics for ecology trends.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2(4), 131-142. Retrieved from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d=ART001283887>
- Manzini, E. (1991). *Artefacts Vers une nouvelle ecologie de l'environnement artificiel* [Artifacts Towards a New Ecology of the Artifacts]. Paris: Editions du Centre Pompidou.
- Matthew Adams 16S/S. (2015). [Photograph]. *WGSN*. Retrieved December 23, 2021, from <https://www.wgsn.com/library/results/eb5494990e5b09501dfbde20e5aebbb4/%EB%9F%B0%EC%9B%A8%EC%9D%B4>
- Mqal 18S/S. (2017). [Photograph]. *WGSN*. Retrieved March 10, 2022, from <https://www.wgsn.com/library/results/22dc43026edfbc4f75aa379eaa20e3c>
- Non-dyed Fabric. (n.d.). [Photograph]. *Pinterest*. Retrieved February 11, 2022, from <https://www.pinterest.co.kr/pin/55028426674686553/>
- Nylon Fabric. (n.d.). [Photograph]. *Efabrics*. Retrieved February 11, 2022, from <https://efabrics.co.uk/Waterproof-Fabric-Nylon>
- Odum, E. (2014). *Ecology and our endangered life-support systems*. (D. Lee, Trans.). Seoul: Science-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93).
- Pepper, D. (1989). *The roots of modern environmentalism*. (M. Lee, Trans.). Seoul: Hangil-sa. (Original work published 1984).
- Schmaher, E. (1986). *Small is beautiful*. (J. Kim, Trans.). Seoul: Beomwoo-sa. (Original work published 1974).
- Song, H., Kim I., & Kim, H. (2007). *Textile*. Seoul: Kyo moon-sa.
- Sparke, P. (1995). *An introduction to design and culture in the twentieth century*. (S. Lee, Trans.). Seoul: Kkachi. (Original work published 1986).
- Techno-centrism. (2022). *Doosan Encyclopedia*. Retrieved from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201130001631834
- Trizar Fabric. (2017). [Photograph]. *Fashionbiz*. Retrieved February 11, 2022, from <https://m.fashionbiz.co.kr:6001/index.asp?idx=160298>
- Yoo, E. O. (201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ashion design for environment. *Institute of Arts and Culture*, 2(0), 25-55. Retrieved from <https://papersearch.net/thesis/article.asp?key=3369779&code=CP00000006>

Received (January 5, 2022)

Revised (February 11, 2022; February 21, 2022)

Accepted (March 7, 2022)